

행복한 인생, 알찬 노후 설계

1차시 호모 헨드레드 시대

1)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

- 100세 시대에 달라지는 것들

· 일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 인생 100세 시대에는 여가시간 활용이 삶의 주요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122세로 사망한 프랑스에 잔 칼망 여사는 85세에 처음으로 펜싱을 배웠으며, 그녀는 펜싱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무려 37년을 더 살았다.

· 인생 100세 시대에는 부모와 자식이 모두 오래 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 인생 100세 시대는 남녀간의 수명 차이를 고려한 노후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7세이지만, 보통 결혼한 남녀의 연령 차이를 보면 3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 인생 100세 시대는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여자를 중심으로 노후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인생 100세 시대에는 길어진 노후기간만큼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건강수명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71.29세로, 평균 수명이 약 80세 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9년 정도가 병치레 기간이란 의미다.

2)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의 사회

-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3대 키워드는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

우리 나라의 '2012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201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뿐이었다.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고령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수 있다.

- 자신의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인생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 필요하면서 또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만 한다.

-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전반적인 삶의 눈높이를 낮추고 부채 없는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3) 고령사회를 위한 인생 설계

-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라는 재무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 외에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비재무적인 요소들도 갖추어야 한다.

- 크게 건강, 관계, 참여, 배움이라는 4개의 축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달 수 있다.
 - '건강'은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 함.
 - '관계', 관계는 배우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한다.
 - '참여', 참여는 밥벌이를 위한 경제활동을 포함해 삶의 질을 높이는 봉사활동,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나 취미활동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 '배움': 앞으로 100세 시대의 은퇴는 자아가 원하는 진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4) 노후자금과 은퇴준비교육

-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력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반도 안 되는 42% 가량의 사람들만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
-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우리나라 최대의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략 부부기준으로 월평균 188만원 가량의 생활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대로 된 노후준비교육이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은퇴준비교육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으로, 조사대상자의 3%만이 은퇴준비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은퇴준비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차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이프사이클

1) 라이프사이클과 3개 재무이슈

- 재무 설계(인생 설계)는, 인생주기에 맞게끔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본인이 처해있는 현재상황을 분석해 본 후, 앞으로 준비해야 할 재무목표와 준비기간, 그리고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 구체적인 자산설계를 세워 실천.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또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몇 가지 단계로 나타낸 것을 라이프사이클
 - 20~30세까지는 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 시기
 - 30~40세는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양육/교육하는 등 소비가 왕성하게 증가하는 시기이자,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득도 함께 증가하여 어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고 증식시키는 시기
 - 40~50세는 곧 이어질 퇴직으로 인해 소득 단절이 예상되므로 가진 자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시기
 - 50~60세 이후는 은퇴 후의 삶을 즐기면서 인생을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시기
- 은퇴준비의 경우 경제활동시기보다 은퇴 이후 시기가 길어지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
- 경제활동시기에 달성해야 할 경제적 목표들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 중요.
-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입과 지출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재무이슈들: 결혼, 자녀양육, 내 집 마련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만 8000가구의 남녀 1만 3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이 7545만 6000원, 여성이 5226만6000원
 - 자녀 1명을 대학 졸업 때까지 키우는 데에는 총 3억 896만4000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2012년 자녀의 양육비는 월 평균 118만9000원
 - 내 집 마련 기간은 평균 8년

2) 재무설계는 자산관리의 네비게이션

- 내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리려면 돈 모으기만큼 돈 관리도 잘해야 한다.
- 재무 설계 잘 하기 위한 방법
 - 재무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재무설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자신의 여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체적으로 파악
 - 장기적인 관점: 재무설계를 재조정하거나, 적금과 펀드를 해지하는 일 없도록 함
 - 재무설계 프로세스 준수: 각각의 프로세스를 잘 지켜야만 문제해결이 쉬워짐
- 재무설계 과정 이해하기: 재무목표 설정→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의 현재 준비상황을 점검→ 달성 가능성 점검→ 재무목표 조정→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성→ 구체적인 상품에 실제 투자 실행→ 점검 및 조정

3)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20대와 30대 재무설계전략

- 20대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재무설계전략

- 자산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늘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
- 주로 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형태의 비교적 안전하고 위험성이 적은 저축과 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자산증식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

- 30대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재무설계전략

-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임과 동시에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발생
- 조금 위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여 자산을 최대한 늘리기
-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 이를 응용해보는 자세가 필요
- 자신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정확히 파악
- 현실의 만족스런 소비활동과 미래를 대비한 노후자금 마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기

4)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40대와 50대 재무설계전략

- 40대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재무설계전략

- 경제적으로도 목돈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기이자, 지출이 많은 시기
-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노후자금 외에도 모아진 자산을 잘 운용하여 이익을 거두기 위해 애써야 함
- 은퇴를 하여 소득이 줄거나 아예 중단되더라도 현재 쓰는 만큼의 돈을 충당할 정도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자산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
- 자신의 수입 중 상당부분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에 적립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여겨 전체적인 은퇴준비의 윤곽을 명확하게 하기

- 50대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재무설계전략

- 은퇴준비기: 지금까지의 노후설계를 점검하고 더욱 노후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함
-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를 대비한 자산의 유동성 확보
- 재산을 불리기보다는 지키는 게 더욱
- 어디서 살지, 무엇을 배울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

3차시 들고 도는 귀한 돈, 천한 돈

1) 중앙은행의 신용창출과 통화정책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공채 매매 등을 통해 통화량 조절
-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획을 맡고 한국은행이 실행을 맡는 구조
-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은 물가나 금리, 환율 등의 변동을 통해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침
- 본원통화는 민간 화폐보유액과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
- 신용창출: 은행의 대출과 예금자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되면 한국은행이 당초 은행에 공급하였던 돈은 몇 배로 늘어남
-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 공개시장조작정책, 여수신정책, 지급준비정책
 - 공개시장조작정책: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
 - 여수신정책: 일반은행이 기업과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는 정책
 - 지급준비정책: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대비하여 예금 및 은행발행 금융채 발행액의 일정 비율, 현금으로 보유

2) 물가 상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물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들을 종합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균적인 가격 수준
- 물가지수: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물가의 변동에 따른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 측정 가능하며, 경기지표와 함께 경제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의 기능
-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그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를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의 원인: 총수요의 증가(가계, 기업, 정부, 국외 등 각 부문의 지출 상승, 돈의 양, 소득,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 총공급의 감소(대표적인 것으로 생산원가 상승)
- 인플레이션의 영향: 사회적 비용 발생
 - 피셔효과: 물가 상승할 수록, 실질금리는 하락
 - 인플레이션 조세: 화폐공급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
 - 부의 분배 왜곡(실물자산을 사려고 하며, 금융자산의 가치 하락)
-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어느 나라든 간에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

3) 물가 하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 디플레이션 발생 이유: 인플레이션 시기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버블이 터지는 시기로, 거품이 꺼던 자산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
 - 대표적인 사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돈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
- 디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태에 빠지면 '공황': 세계경제에 아주 치명적이었던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서야 해결
-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직접 시장에 돈 풀기): '돈값'이 떨어져, 양적 완화정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음
- 출구전략: 원래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시나리오에서 유래된 군사 용어. 경제에서 출구전략은 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4) 경기변동과 경기흐름 예측방법

- 경기순환(경기변동): 경기가 장기적인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
경기의 정점(저점)에서 다음 정점(저점)까지의 기간: 순환주기
- 우리나라의 과거 경기순환 과정의 특징: 경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인 모습
- 경기흐름 예측 방법: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
 -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신속하게 현재의 경기상황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경기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움
 - 종합경기지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 현 경기국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환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경우 경기지표의 대응성 떨어짐
 - 설문조사방법: 다른 방법보다 비교적 손쉽게 경기변동을 판단 / 경기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거나 경기전환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 계량모형에 의한 방법: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 예측력 떨어짐.
- 현실 경제를 분석할 때에는 어느 한 가지 방식보다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
- 경기가 좋을 때에는 성형외과 호황/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호황

4차시 오르락 내리락, 금리와 환율

1) 금리와 돈의 가치

-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
- 금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 계산하는 방법(단리와 복리), 물가 변동 고료(실질금리와 명목금리),표면금리와 실효금리
-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금액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거나 미래에 그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미래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견줄 수 있다.

2) 금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물가는 물론이고, 국가 간의 자금 흐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즉,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물가, 주가, 부동산, 자본 이동에 영향을 끼친다.
-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 금리와 부동산 수급상황, 그리고 정책 동향을 잘 살펴야 함
- 금리를 수단으로 하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

3)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

- 국제통화: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정도(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전 가능 통화는 약 40개 내외)
- 우리나라 환율은 자국통화표시법을 사용(그 나라 돈의 대외가치와 반비례)
- 환율 결정: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
- 환율의 움직임은 참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경제의 기초여건(경제성장률 등)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험 및 이러한 모든 변수들의 장래 움직임까지 고려, 참여자의 심리적인 상태나 루머 등

4)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 개선(수출에 있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국내 물가 수준 상승, 외채상환 부담 상승, 환차익 발생(수출업체, 외화예금자 등)
- 환율이 하락하면,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많은 업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 타격
- 환율을 통한 재테크수단: 외화 예금
- 외환 거래 자유화 조치로 일반인들도 외화 정기예금/정기적금 가능하며, 금액과 통화에 제한없음
- 일정한 금리: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매우 높음.
- 외화예금에 가입할 때는 환율과 통화의 변동성에 주의하며 외환 전문가와 상담

5차시 목적이 이끄는 예금과 적금

1) 저축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습관

- 실제로 '저축이 미덕'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계 저축률(OECD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최저 수준)
- "돈을 모으는 데는 테크닉이 끈기를 이기지 못 한다": 특별한 투자기법보다도 꾸준한 저축이 반드시 선행
- 저축 시 고려 사항: 저축목표의 구체화, 소비습관 점검 및 개선, 돈이 붙어나는 재미를 실제로 맛보기, 종자돈을 만들기 위한 정기적금

2)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 금융상품 선택을 위한 올바른 요령
- 목적을 고려한 선택: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모은 돈을 불리려고 하는 것인지, 돈을 모은다면 왜 모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
- 기간을 고려한 선택: 돈이 언제 필요할 것인지를 예측한 다음 금융상품에 가입
- 자금 지출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장기 저축자금과 단기 운용자금을 구분하여 기간을 분산
- 금리를 고려한 선택
- 안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즉 환금성을 고려한 선택
-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는 위험
- 각 금융기관이 수익률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유의: 세후 실효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
- 금융상품 속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일수록 수익성이 낮은 편이고, 안전성과 유동성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편
- 세금절약을 고려한 선택: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줄여주는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
-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도 선택대상으로 우선 고려

3) 저축목적에 맞는 금융상품 선택

- 금융상품을 특성에 따라 분류: 수익률이 낮은 반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적은 돈을 매월 또는 매분기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일정규모 이상의 목돈을 불려나가는 상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품
- 저축을 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선택 못지않게 수익성, 환금성, 안전성 및 부대서비스 내용 등 여러 금융상품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고 각자의 저축목적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
- 가장 많이 가입하게 되는 예금상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정기적금, 정기에금, 주택청약예금 등)
- 청약 통장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청약종합저축(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음, 정부가 관리)

4) 예금자 보호제도

-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
-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들: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리고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협은행, 수협중앙회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
-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
 - 은행의 경우,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등이 보호금융상품에 해당
 - 증권외의 경우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보험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종금사의 CMA는 보호
 -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호
-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 보호금액 5천만원이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

6차시 초보가 알아두면 좋은 투자상식

1) 72의 법칙

- 72의 법칙: '자산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를 계산하는 일종의 공식
- 다소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자산관리나 투자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음
- 72의 법칙 응용: 기간이 주어졌을 때 자산이 두 배로 불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금리(수익률)
- 경제성장률 등을 예측할 때 사용: 인도나 중국 등 신흥 시장의 경제 규모가 두 배로 성장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추정
- 단리가 아닌 복리가 적용되는 계산법
- 자산관리에서의 의미: 부를 빠르게 축적하려면 적절한 위험을 감수, 꾸준한 재투자, 하루라도 빨리 일찍 시작해야 함, 장기 투자, 목표 설정과 점검이 중요
- 결론적으로 72의 법칙은 자산관리나 투자를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인가, 또 그러려면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

2) 80대 20의 법칙

- 파레토의 법칙: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경험적인 경제법칙. '어떤 현상의 80%는 20%의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 어떤 결과의 대부분이 특정한 소량의 원인에 달려 있어, 일을 할 때에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 큰 도움이 된다.
- 주식투자를 통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
- 80%의 이익은 20%의 종목에서 나온다: 제대로 고른 2개 종목에 집중 수익 냄
- 80%의 손실은 20%의 종목에서 발생한다: 애써 다른 종목에서 번 수익을 한두 종목에서 손해
- 80% 상승은 20% 기간에 이뤄진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의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것은 문제일 수 있음
- 2가지 중요한 점: 반드시 우량 자산에 투자, 장기 투자

3) 정액분할투자의 법칙

- 정액분할투자법(Cost Averaging)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일반 투자자에게 추천한 투자법
- 매달 보는 적금처럼 월이나 분기 단위로 일정한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주식이나 펀드에 꼬박꼬박 투자하는 방식
- 특성: 정기투자, 분산투자, 장기투자
- 방법: 직접 투자(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유혹에 빠지기 쉬워 당초 취지와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음)와 간접 투자(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별 신경 쓰지 않고도 매달 자동으로 투자가 가능)
- 적립식 펀드나 정액분할투자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환매 요령
-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환매를 고려하는 방법
- 환매 가능 시기를 넉넉히 잡는 것
- 환매 시점이 다가오면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

4) -50=+100의 법칙

- 초보 투자자에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공식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워렌 버핏의 투자 성공의 원칙: 돈을 잃지 마라, 첫째 원칙을 잊지 마라
- 손실 혐오 본능: 행태경제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똑같은 액수라 해도 얻는 것의 가치보다 잃는 것의 가치를 훨씬 크게 느낌
- 기분 효과: 사람들은 후회를 회피하고, 자부심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이 난 종목을 쉽게 팔아버림
-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영향 받지 않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 매수한 가격에서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미련을 갖지 않고 기계적으로 파는 것

7차시 나도 부자다: 펀드, 주식투자 노하우

1) 펀드를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는 펀드투자와 주식투자
- 펀드투자
 - 우리나라의 펀드는 2013년에 총 9,193개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음
 - 좋은 펀드 고르기: 펀드의 수익률(단기와 장기 수익률을 모두 두루), 투자에 따르는 비용(1년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과 비슷한 경우도 있음), 펀드매니저의 실력, 이외에도 해당 자산운용사의 과거 수익률은 물론 재무상태, 경영투명성 여부

2) 펀드를 고를 때 활용하는 평가지표

- 여러 펀드의 위험성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
-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함: 표준편차, 베타 계수, 샤프 지수 같은 지표
 - 펀드 수익률의 표준편차(일정 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의 변화를 측정, 동시에 미래의 위험 측정가능)
 - 베타(β) 계수(펀드 수익률이 펀드가 투자하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좌우되는 정도, 즉 민감도/ 단점이라면 관련 벤치마크에 대해서만 유용)
 - 샤프 지수(펀드의 수익률과 위험도를 함께 재는 지표/ 값이 클수록 위험대비 펀드성과 면에서 우월)

3)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 배당과 시세차익
- 주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기업의 외적 요인: 경기, 통화량, 물가, 금리, 환율, 원자재
 - 기업의 내적 요인: 기업의 경영 성과나 영업 실적, 경영자의 자질, 신상품 개발 및 신규 사업 진출 등(기업경영의 결과가 집약된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
 - 증권 분석가들이 작성한 리포트나 경제신문의 증권면에 요약된 리포트를 증권사지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해 읽은 후, 이를 통해 투자

4) 주식투자에 중요한 판단지표

- 재무 비율 분석이란, 재무 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간의 관계를 이용한 비율을 산출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 대표적인 세 가지 지표
 -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업가치가 자라나는 속도(순자산이 자라나는 속도)
 - 주가수익비율(PER): 기업이 벌어들이는 1원의 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이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
 - 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

8차시 어렵지 않아요. 보험

1) 이름만으로 알 수 있는 보험의 특징

- 위험관리는 단순히 보험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설계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이 대단히 높은 편: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위험 관리 원칙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
 - 이유: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금융회사들이 무조건적 판매 위주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 보험 가입자들의 잘못된 인식, 무관심
- 보험 상품명은 크게 네 부분: 회사명, 배당 여부, 부가기능, 본질적인 보장기능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차이: 똑같이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어도 생명보험사의 것은 '암 진단 시 3,000만 원'처럼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 대부분 이고,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은 실제 본인이 쓴 금액을 지급
- 배당 여부: 유배당(예상보다 자산운용 수익이 늘어난다거나, 사고가 줄어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잉여금을 고객에게 배당)/ 무배당(고객에게 잉여금을 돌려주지 않음)
- 부가기능: 변액(운용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투자이익을 배분/ 손실 위험), 유니버설(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 본질 보장기능: '종신', '정기', 'CI' 등의 단어는 일반 사망을 보장
- 일부 상품에는 보험설계사 이외에 은행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방카'나 '다이렉트'등의 단어가 붙기도 함.

2) 알면 힘이 되는 보험용어

-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돈
- 보험금: 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약정한 금액
- 보험계약을 둘러싼 관계자들: 크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람/ 법인 또는 복수도 가능
 -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으며 제3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도 있음
 - 보험수익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속한 사고
-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보장기간을 말하며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 /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비교
 - 두 보험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주 담보
 -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 피보험자의 생애 전체를 보장
 - 정기보험: 보장기간이 정해짐.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이 있음

- 대체적으로 다른 보험상품들보다 보험료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용

3) 보험계약의 3대 기본 사항

- 보험 계약의 3대 기본 사항

- 자필서명: 보험계약의 체결을 구두로 하건 서면으로 하건 관계없지만, 실무상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해 둔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 너무나 간단한 이 작은 행동이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청약서 부분과 제1회 보험료 납입 영수증
-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 / 보험계약자는 상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

-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

- 보험료 납입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 사소한 실수 하나로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 필요
-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김

- 보험계약자의 3대 권리

- 청약철회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취소권: 보험계약의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보험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함
- 보험계약 부활권: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권리

4)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유지를 위한 제도

- 어려울 때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 보험사로 자동대출 납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보험사는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까지 계약을 연장
-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려울 때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고, 이자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
- 보장금액 감액이나 특약 일부를 해약
- 중도인출 기능 활용
- 보험 계약대출(약관대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뒤 보험료를 내는 방식
- 보험을 일단 실효시켰다가 다시 부활하는 방법
- 종신보험에만 해당하는 내용: 감액완납보험,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

- 보험가입 전 유의 사항 3가지

- 보험을 무리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

- 보험에 저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약하지 않는 것

9차시 모르면 손해 보는 신용과 대출 활용법

1) 신용의 개념과 필요성

- 신용이란 장래 어느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 신용은 잘 이용하면 우리의 생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이용하면 과도한 부담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는 등 양날의 칼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신용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 구매 가능
 - 소득 및 자산을 보호
 -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서의 신용이용은 신용도를 높일 수가 있음
-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개인의 신용 관련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에 활용되고 있어 신용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가 평생 동안 개인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신용등급은 한 마디로 '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 정도를 나눈 등급표'

2) 바람직한 신용관리방법

- 오해하기 쉬운 상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2011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조회기록 정보는 신용등급 산출시 반영되지 않음
 - 소액연체라도 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011년 10월부터 10만 원 미만의 연체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대출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높다?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이므로 신용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려움
 -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올라가지 않는다? 꾸준히 관리하면 반드시 올라감
- 바람직한 신용관리방법
 - 주거은행을 만들어야 함: 금융거래를 주거은행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음
 - 신용카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카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단 하루의 연체도 하지 말아야 함: 연체정보는 카드사간에 공유되기 때문에 해당 연체카드의 사용이 정지되면 다른 카드의 사용도 제한.
 -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정보가 등재되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기가 불가능
 - 보증을 설 때도 한도, 기간 등 계약관계는 철저히
 - 현금서비스는 정말 필요할 때만: 건전한 소비를 통해 부채를 잘 관리
 - 자동이체를 최대한 활용
 - 각종 금융거래 알람, 즉 SMS 등을 이용하고 영수증 챙기기
 -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보
 - 자신의 신용도를 주기적으로 조회

3) 똑똑하게 대출 활용하기

- 돈을 빌릴 때에는 반드시 스스로 갚을 능력이 있는 한도까지만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갚아야 함.
- 2012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4.6%로 가구당 평균 부채는 5,291만 원
- 대출상환방식의 차이
 - 만기일시상환(거치식): 만기 이전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리금을 모두 갚는 방식
 - 원금분할상환: 원금을 만기까지 균등하게 나누어 갚고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점차 감소하는 방식,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가장 유리한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한 금액을 만기까지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
- 대출 시, 금리 조건이 크게 두 가지: 고정금리 조건과 변동금리 조건
 - 금리 상승기: 고정금리 방식 대출이 유리 / 금리 하락기: 변동금리 방식 대출이 유리
 - 변동금리 방식이 유리한지 아니면 고정금리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

4) 대출받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자금의 사용용도와 상환계획을 분명히 하고 그에 알맞은 대출방법을 선택
- 6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쓸 소액의 자금: 예·적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을 활용 또는 마이너스대출도 유용할 수 있음
- 대출 규모를 적절한 수준 이내로 하고 매달 원리금도 월급의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함: 대출 규모를 집값의 30% 이내로 하고 매달 원리금도 월급의 30% 이하가 되도록 권장
-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 금지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고시하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확인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음

10차시 내 집 장만하기:부동산

1) 부동산 시장의 시대별 흐름

- 부동산의 지역적인 변화
 -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강북의 고급주택 지역
 -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강남권 아파트가 전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도
- 주택문화의 변화
 -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상품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 이후, 강남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가 인기
 - 1990년대 말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신개념 주거공간이 등장
 - 2000년대 들어서는, 근교에 타운하우스나 고급주택 단지에 투자
- 부동산경기의 변화
 - 2000년대 들어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2007년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 부동산시장은 회복되질 않고 있는 형국
- 만일 부동산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투자에 대해 공부

2) 부동산 정책의 집행 과정

- 대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수십 년간 구축되고 집행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뒷북치기 식인 정책을 집행해 왔다고 함
- 과거 시대상황에 따른 부동산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향후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지 예측하는데 도움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발전과 국토개발을 한창 해나가는 시대로, 절대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데 개발정책의 초점
 - 1980년대 초,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주택 500만호 건설계획')
 - 1980년대 말부터 부동산투기 열풍('200만호 건설계획')
 - 1990년대 후반,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경기 부양책('분양가 전면 자율화'와 '50만 가구 건설계획')
 -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가격 폭등이 멈추질 않자 정부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

3)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화 요인

- 집이 가장 비싼 상품이면서 집과 동네가 차익별이의 수단이 되자, 집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한다
-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요인
 - 인구구조의 변화: 높아지고 있는 결혼연령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가속도가 붙은 고령화 추세→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바로 고령화 현상
 - 도심재생 프로젝트: 도시의 생애주기론에 의하면 도시는 보통 100년을 주기로 개발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재개발기를 거쳐 발전
 - 지방도시 재활성화: 혁신도시 사업, 세종시 사업
 - 부동산시장의 수급상황: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와 더 나은 주거환경에 대한 니즈 증가

- 고령화 사회로 치달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음

4) 부동산 패러다임의 변화

- 과거 '주택은 사놓기만 하면 재산을 늘려주는 재테크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음→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투자행태로 부동산투자에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됨
- 요즘 젊은 세대는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이용하는 데 만족해하는 경향이 강함
- 향후 부동산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가격도 안정되게 변화하리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예측
-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손실을 입지 않는 자산 보존에 더 신경

11차시 행복 탄탄, 3층 보장 연금

1) 3층 보장구조의 기초, 국민연금

- 은퇴 후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3층 보장구조'를 마련: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3층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쌓는 것
- 공적연금은 운영주체가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1차 소득원
- 근로자들이 근로 기간 동안 일정액의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후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되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노후보다는 기초 생활보장에 초점
- 연금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장점은 평생 보장이 된다는 점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라는 부가적인 혜택
- 단점은 노후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연금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향후 연금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2)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퇴직연금

- 과거 퇴직 시 한 번에 몰아주던 것이 퇴직금이라면 퇴직연금은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함
- 유형으로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퇴직금의 적립이나 운용, 그리고 지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음.
-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 대략 한 달치 월급을 확정된 다음, 그 돈을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별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 근로자가 퇴직연금용 상품을 선택한 후, 이에 따른 운용 결과도 근로자가 책임지는 방식
-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
- 최악의 경우에 대비
- 퇴직금 보장 비율
-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비교

3) 즉시연금과 주택 연금

- 즉시 연금: 목돈을 맡겨주고, 다음 달 또는 이듬해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 가능
- 수령 방법은 다양: 상속형, 확정형, 종신형
- 지금까지는 즉시연금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주의가 필요: 한 번 가입하면 해지가 불가능 또는 해지 시 엄청난 손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 변동 가능, 반드시 두 세 곳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비교 후 가입하는 것이 좋음
- 주택연금: 자기 집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탈 수 있는 상품
- 장점: 주택금융공사가 상환을 책임
- 유의 사항: 가입 시 드는 비용 발생,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에 제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지급액 축소 가능성

4) 개인연금의 활용방법

- 보험사의 연금보험을 활용법

-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은 대부분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음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10년 유지 시 비과세가 되는 연금상품: 변액 연금 보험과
-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의 공백기간을 개인연금을 활용해 최소화

12차시 실속 있는 금융회사 활용법

1)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대출금리는 값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 변경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받은 이후 연장할 때 협의를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고객우대 차원에서 금리를 할인해 신용도 향상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
- 은행과 협상을 잘하면 대출금리도 깎을 수 있고 예금금리도 높일 수 있음
-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에는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님: 대출을 받은 뒤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또는 정기적으로 은행을 방문해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금융소비의 자세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개별 대출금리보다 이자는 조금 높지만 쓰는 기간과 금액만큼만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금을 단기간에 쓸 계획이고, 수시로 돈을 입·출금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편리하고 유리한 방법: 직업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공무원이나 교사,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담보대출보다 싼 금리)

2) 증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 간접투자방식의 펀드: 직장인에서부터 목돈을 안정적으로 굴리려는 노년층, 용돈을 모아 종자돈을 만들려는 대학생, 직장 초년생에 이르기까지 펀드열풍,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인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민에게 원망의 대상
- 운용사는 펀드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매년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고는 이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전략을 주로 추구
- 펀드운용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음: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3)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 지인영업 자체는 매우 힘든 일: 신규 보험설계사 10명 중 6명 이상은 1년 이내 그만둠
- 새로운 설계사는 오히려 고객에게 새로운 계약을 추천
- 보험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수익률 비교로 인해 금융소비자연맹과 생명보험업계 간 갈등이 있었음 → 양측의 주장 사이에는 '사업비'라는 비밀
- 사업비는 일종의 보험사 수수료이며, 그 중에서 판매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판매수수료는 선취 방식으로 부과된다.
- 수수료를 먼저 떼는 다른 회사의 우수 설계사를 뺏어오기 위해 시작 됨→ 서서히 정상화

4) 카드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 카드회사,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혹(ex. 데이 마케팅)
- 카드 회사가 요일별 할인 혜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를 제시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카드회사가 지정한 요일별 혜택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생활패턴을 짜놓은 마케팅 방식 속에 정확히 집어넣어야만 함.
- 카드회사들이 내놓는 혜택의 할인율도 흐릿한 부분
- 포인트 선결제: 이를 이용한 회원이 2012년 말 전업 카드사 기준으로 총 534만 8000명. 카드 선

지금 포인트를 이용해 고가 제품을 구입했으나 이후 카드 사용 실적이 모자라 현금으로 갚는 사례가 구매자 가운데 절반에 달함

13차시 돈 관리는 통장 쪼개기부터

1) 재무상태의 진단

- 합리적인 재무설계는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시작
- 개인들도 자신의 재무상태를 표로 작성해보면 자산과 부채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음
- 재무 상태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자산관리의 문제점을 파악
 - 단기채무 상환 여력을 체크
 - 총자산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이 적절한지를 확인
 - 재무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동자산과 함께 보장자산과 연금자산을 포함한 전체투자자산의 비중과 규모가 적절한지 체크
 - 순자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함

2) 현금흐름의 이해

- 합리적인 재무설계의 두번째 요건은 철저한 현금흐름관리
- 현금 흐름표를 통해 체크해야 할 사항
 - 현금의 순증가를 통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현금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아야 함
 - 소득원이 얼마나 다양한지 체크
 - 지출 규모가 적정한가를 점검
 - 저축과 투자비율이 수입에 비해서 충분한지 체크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적정한지 체크
-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가 주는 장점
 -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재무 나침반
 - 미래의 재무계획 및 투자 계획의 기초 제공
 - 객관적인 자기 반성의 시간

3) 예산과 결산

- 예산은 한 마디로 기대 소득에 기초한 지출 계획(유입과 유출로 구성)
 - 예산의 장점: 정말 원하는 것을 갖도록 도와 줌, 소득 내에서 지출, 돈 문제에 관한 가족 간의 갈등 해결
 - 예산 세우는 방법: 재무 목표(들) 파악→ 과거와 현재의 소득과 지출 상태 파악→ 월 소득 계산→ 저축을 얼마나 할지 먼저 결정→ 지출 항목 분류, 이에 따라 필요한 월평균 지출 비용 결정→ 예산 실행→ 예산 평가하고 다음 예산 수립에 반영
-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지출 감소 / 부채 조정 / 소득 증가 / 재무 목표 조정 / 개인적인 문제 해결

4) 통장 나누기

- 크게 네 가지 목적에 맞는 통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급여 통장: 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함께 고정적 지출을 관리하는 계좌
 - 생활 통장: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식비나 교통비, 문화비 등의 지출을 위한 용도로 활용

- 투자 통장: 재무 목적에 따라 여러 개 가능
- 비상 통장: 최소 월 평균지출의 3개월 치에서 6개 월치에 해당되는 금액
- 통장 자동이체에도 적절한 순서: 투자통장, 고정지출, 생활통장 순

14차시 내 마음을 통한 인생설계

1) 우리는 합리적인가요

- 최근에는 경제 행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여 이를 활용하는 학문이 주목
-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고 말한다
- 재산이 똑같기 때문에 만족감의 수준도 똑같을 것이라는 짐작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
-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만족감과 직결되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 그 자체가 아니다.
- 사람들의 만족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변화 양상
- 사람들이 이득보다 손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 손실기피적인 태도가 인간의 특성
- 우리의 삶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마음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을 인생설계에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2) 내 마음을 이기자

- 심적 회계: 마음속에 담아놓은 자신만의 지출과 수입 (예. 박교수의 이야기)
-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갑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혹은 어디에 쓸 돈이냐에 따라 각각의 칸막이를 쳐 놓고 구분하는 버릇을 갖고 있음
- 심적 회계에 의존하는 이유: 돈을 쓸 때마다 현재와 미래의 대안 및 전체 재산 상태를 일일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
- 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출처에 따라 나누지 말고 살아야 한다.

3) 저축, 잊는 것이다

- 의지가 약하거나 유혹에 쉽게 굴복해 버린다면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넉넉한 노후자금이나 건강한 삶은 얻기 힘들
- 작심삼일처럼 현재 시점에서 결정한 미래의 선택이, 미래가 현실점이 되었을 때 다른 선택으로 바뀌는 것을 '시간적 비일관성'
- 시간적 비일관성의 발생 원인: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
- <괴짜 경제학>, 행동 장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는 자동 이체를 적극 이용하는 것

4) 일, 취미, 가족을 위한 마음의 준비

- 은퇴를 준비함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일과 여가, 가족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젊었을 때와는 다른 의미를 일에 부여함으로써 일의 가치를 마음으로부터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전환하는 방법: 목적 중요('물질'에서 '일'로의 전환), 의미 필요(일종의 여가와 같은 의미), 대상은 '나'(은퇴 후에는 가족보다는 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할 필요)
- 일 외에 여가활동을 위해 취미를 갖는 것, 또는 이를 준비하는 것이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이 될 수 있음
-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간활용,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취미

- 은퇴자가 취미를 가지면 좋은 점들: 시간이 빨리 흐름, 외로움 해소, 관계형성을 통해 존재감증대, 건강 유지
- 은퇴 후, 바람직한 가족과의 관계: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녀세대에게 닥친 경제불황과 부모세대에게 닥친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 다양한 가족의 출현 속에 부모와 자녀가 공존하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리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이상적인 근거리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녀 모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가능

15차시 행복을 그리는 노후준비

1) 은퇴 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 더 이상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 은퇴설계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큼: 직업이나 일로부터의 은퇴이지, 삶으로부터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은퇴설계의 필요성
 - 노령인구 증가
 - 노인부양의식 약화
 - 은퇴 후 소득 감소
- 은퇴설계, 즉 은퇴계획을 잘 짜기 위한 고려 사항
 - 은퇴기에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추정: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 매년 필요한 액수 X 은퇴 후 기대여명'
 - 은퇴 후에 어느 정도 더 살 것인가
- 은퇴 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면, 젊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음
-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선, 먼저 노후를 위해 이미 가입해 둔 저축액과 연금의 은퇴 후 수령액을 파악한 후,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서 이 액수를 뺀 액수를 퇴직시점에서 현재의 연령을 뺀 기간으로 나누어 주면, 퇴직할 때까지 매년 저축해야 할 액수가 계산 됨
- 은퇴 후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3층 노후생활 보장체계

2) 은퇴(퇴직) 전 점검 사항

- 은퇴 전에 부채 상황: 생활이 무척 빡빡해질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파산 초래, 은퇴 전에 꼭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장수리스크를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 세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장수 리스크가 더욱 높은 편이므로 은퇴기간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예상기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
- 적어도 3개 이상의 은퇴소득원 마련
- 은퇴자산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유지
-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고려
- 개인연금 갓추기
-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은퇴자금 축적
- 배우자와 함께 은퇴계획
- 은퇴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 모임, 친구를 만들기
-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

3) 은퇴 후에 조심해야 하는 주요 위험들

- 은퇴 후에는 수명리스크 이외에도 노후에 재정적인 부분을 뒤흔들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쉬움: 부부 및 자녀관계, 건강,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노후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는 주요 위험

- 은퇴창업에 실패할 위험
- 금융사기에 휘말릴 위험
- 중대한 질병에 걸릴 위험
- 성인자녀와 함께 살게 될 위험
- 노후에 맞이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사항
- 재취업이 우선이며, 만약 창업을 고려한다면 철저하게 준비
- 금융·투자지식을 쌓고, 단기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기
- 중대질병에 대해서 보험상품으로 대비하는 것을 고려
- 자식을 떼어놓고 노후를 생각할 수 없다면 미리 은퇴설계에 포함

4) 총체적 은퇴(퇴직) 설계

- 은퇴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할 부분: 재무적인 부분
-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은퇴기간에 + α 기간까지 고려한 은퇴계획
- 준비하는 은퇴자산을 불러나가기
- 다양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선 안에서 보험상품을 충분히 갖추기
- 은퇴 후의 제 2의 삶을 구상하여 또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 은퇴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할 부분: 비재무적인 부분
-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하며, 이를 위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노력이 필요
-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모임 등 대인관계를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
- 꾸준한 자기계발